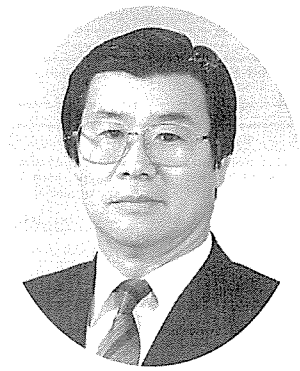
'94과학예산 1兆5千億

—— 국가연구개발예산의 규모와 특징



張 洙 瑛
〈과학기술처 기획관리실장〉

우리나라 연구개발예산이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경기의 침체로 인한 세수부족과 긴축경제기조 속에서도 93년에는 92년보다 20.7%가 증액되었고, 94년에도 93년 대비 30.0%가 증가한 1조5천1백32억원이 계상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총예산대비 연구개발예산의 비율은 93년의 2.18%에서 94년에는 2.36%로 제고되고, 이는 「98년까지 총예산의 5% 투자」라는 정부부문 중기투자목표에 점진적으로 접근하고 있음은 물론, 신경제 5개년 계획기간중의 전체 투자목표인 「GNP대비 R&D 투자 3~4%」의 달성을 위해 정부부문이 선도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부처별로 과학기술처가 5천3백37억원(35.3%)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국방부 3천2백53억원(21.5%), 상공자원부 1천8백89억원(12.5%), 교육부 1천7백76억원(11.7%), 농림수산부 1천1백6억원(7.3%) 등의 순이다.

94년 정부의 과학기술예산 편성내역을 심층 분석해 본다.

새해 연구개발예산 93년보다 30% 획기적 증가
총 1조5천1백32억원, 총예산증가율 19.9% 크게 상회

〈연구개발투자확대! 국가경쟁력 향상의 첩경〉

세계의 기술전쟁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기술선진국들은 기술개발경쟁에서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엄청난 돈과 사람을 첨단기술의 연구개발에 집중 투입하고 있음은 물론 개발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제도적 규제수단을 동원하여 핵심기술 이전을 기피하고 있으며, 중국과 같은 후발개도국은 그들대로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의 지각을 현저히 변동시키고 있다.

문제는 우리와 같은 중진국이다. 창의적 고유기술에 근본을 두지 못한 우리 상품은 언제부터인지 선진국에 밀리고 New NICs와 같은 후발개도국에 추격당해 해가 갈수록 세계시장에서 설 곳을 잠식당하고 있다. 그동안 70년대 GATT와 같은 세계자유무역체제하의 수출드라이브정책에 힘입어 의류·신발 등과 같은 우리의 노동집약적 산업은 크게 성장하여 왔지만,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에 이르러 그러한 경제구조는 점차 빛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어느덧 전기·전자, 자동차, 조선, 정밀화학 등의 중화학공업은 93년의 경우 우리나라 총수출의 65% 이상을 점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우리 산업의 구조 고도화가 더욱 진전되어 이제는 고부가가치의 자본집약적인 산업이 노동집약적인 산업을 대체하여 우리의 수출주력산업으로 대두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9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을 주도할 자본집약적 산업을 발전시키는 핵심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아닌 우수한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기술의 혁신이야말로 국가의 총체적 경쟁력 향상의 필요충분조건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최근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NAFTA, EFTA, APEC, URUGUAY ROUND 등의 경제·기술블록과 다자간 협상은 다름아닌 역내 국가들간의 재화와 용역과 자본의 이동을 점차적으로 자유롭게 보장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자유무역의 이점을 향유할 수 있게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도 피부에 닿게 단계적으로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바로 개방압력이다.

지구화·세계화의 국제경제환경에서 개방의 효능을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산업과 기술이 하루바삐 높은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 튼튼한 경쟁력이 다져져 있을 때만이 개방압력의 위기는 기회로 바뀔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의 확대는 국가경제의 사활을 좌우하는 이 시대의 요구이자 정부, 기업, 그리고 국민 모두의 사명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첨단기술개발을 위한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확대는 민간기업의 투자확대를 유인하기 위한 선도자의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하며, 매년 대폭 증대되고 있는 정부의 연구개발예산은 이러한 차원에서 고무적이며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연구개발투자 목표 및 향후전망〉

2천년대초 과학기술선진국 진입을 위한 연구개발투자 목표는 정부와 민간부문을 합쳐 98년까지 신경제5개년계획의 기술개발전략부문의 상한선인 GNP 대비 4%를 달성하는 것이다. 부문별로 보면 우선 정부부문 연구개발 투자재원을 98년까지 정부 총예산 대비 5%까지 확충하고, 또 정부투자기관의 R&D 투자를 93년도 매출액 대비 2.6%에서 94년에는 3.2%, 그리고 98년까지 4% 이상 수준으로 확대하도록 권고하며, 연구개발투자의 핵심주체인 민간기업의 기술개발 투자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 조세, 인력, 구매 등의 각종 유인제도를 보강해 나가는 계획이다. (표1 참조)

94년도 정부의 연구개발예산은 총예산 대비 잠정 단계적 목표치 2.5% 보다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앞으로 95년도 연구개발예산을 2조3백60억원 수준으로 확보하고 관련 부처가 연구개발기능을 강화하여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98년도 정부부문의 목표치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세계 경기가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기미가 보여지고 우리 경제도 지표상 장기간 침체에서 벗어나 회복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민간기업의 산업생산도 특히 중화학공업군의 기술집약적인 산업에서 점차 활

표1. 연구개발투자확대 목표(계획)

(단위 : 10억원, 경상)

연도	국민[1] 총생산	총예산[2]	연구개발투자			GNP대비 연구개발투자(%)	총예산대비 연구개발예산(%)	정부:민간 (%)
			계	정부[3]	민간			
93	256,700	53,490	6,033	1,164	4,869	2.35	2.18	19:81
94	289,500	64,110	7,527	1,513	6,014	2.60	2.36	20:80
95	325,300	68,313	9,401	2,036	7,365	2.89	2.98	22:78
96	364,300	76,503	11,730	2,696	9,034	3.22	3.52	23:77
97	405,800	8,521	14,528	3,570	10,958	3.58	4.19	25:75
98	450,500	94,605	18,020	4,730	13,290	4.00	5.00	26:74
* 평균증가율(94~98):총투자 24.46%, 정부 32.37%, 민간 22.24% 가정								

주 1)국민총생산:93년 이후는 신경제5개년계획 총량지표를 인용
2)총예산:93~94년은 정부예산실액, 95년 이후는 담세율 21%를 적용
3)연구개발관계예산:93~94년은 정부예산실액, 95년 이후는 평균증가율 32.43%를 적용

표2.주요국의 연구개발예산

(단위 : 백만원)

국가	한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연구개발예산 (배율)	1,434 (1)	72,866 (50.8)	21,456 (15.0)	9,298 (6.5)	14,314 (10.0)	8,679 (6.1)
총예산대비율	2.18	4.7	2.9	4.0	6.3	3.7

주 1)일본은 과학기술관계예산임.
2)연구개발예산은 93년도분이며,
환율은 93.10.13. 현재 매매기준율을 적용함.
3)총예산대비율의 경우 한국은 93년,
미국은 92년, 일본 및 프랑스는 91년, 독일 및 영국은 90년도치임.

자료:일본과학기술백서(93)

기를 띨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관련설비 및 연구개발투자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견되고 있다.

〈주요 기술선진국 연구개발투자 현황〉

(표2)에서 보여주듯이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의 연구개발투자를 비교해 보면 절대규모로 볼 때 93년의 경우 미국은 우리나라의 50.8배, 프랑스는 9.4배, 영국은 6배, 그리고 독일(90)은 6.5배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정부예산에서 연구개발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미국은 4.7%, 일본은 2.9%, 프랑스 6.3%, 영국은 3.7%, 독일(90)은 4.0%로 되어 우리나라의 2.2%보다 높은 통계치이다.

〈94년도 국가 연구개발예산 개요〉

과학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하여 정부는 매년도 4월말까지 종합과학기술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각 부처의 다음년도 과학기술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다음년도 정부예산에 반영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94년도 연구개발예산안은 제9회 종합과학기술심의회(93.5.20)에서 심의·의결한 94년도 과학기술종합시행계획의 8대 주요과제인 전략적 국가연구개발사업(선도기술개발사업 등), 기초과학의 진흥(우수연구집단과 대학부설연구소의 육성·지원확대 등), 기술개발의 국제화(국제공동연구사업 강화 등), 고급과학기술인력의 양성(산업기술인력 양성 등), 과학기술정보체제의 확충(과학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등의 시책을 중심으로 편성됨으로써 과학기술혁신을 위하여 정부부문이 집중 지원해야 할 핵심과제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예산안 총괄

94년도 정부총예산은 64조1천95억원으로 전년도 53조4천8백97억원에 비해 19.9%가 증가하였고 그중 일반회계예산은 43조2천5백억원으로 전년도 38조5백억원에 비해 13.7%가 늘어났다. 여기에 연구개발예산은 1조5천1백32억원으로 전년도 1조1천6백35억원에 비해 30.0%(3천4백97억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81~93년간 평균증가율 15.9%, 지난 3년간(91~93)의 평균증가율 16.6%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며, 아울러 총예산 대비 연구개발관계예산 비율은 2.36%로서 전년도 2.18%에 비해 0.18%가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 내용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제9회 종합과학기술심의회(93.5.20)시 보고된 선도 기술개발사업 등 각부처의 기술개발사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이 균형적으로 반영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사업별 지원내역은 국립 및 출연연구기관의 연구기반 확충사업 63%, 기초연구사업 15%, 선도기술개발사업 8%, 특정연구 등 기타연구사업에 14%로 배분되어 있고, 부처별로는 과학기술처 35%, 국방부 21%, 상공부 12%, 교육부 12%, 기타부처

표3.부처별 연구개발관계예산

(단위 : 백만원)

부 처 명	93년	94년
과학기술처 — 증가율	465,201(40.0) 17.7	533,660(35.3) 14.7
국 방 부 — 증가율	274,663(23.6) 17.0	325,332(21.5) 18.4
상 공 부 — 증가율	126,787(10.9) 16.3	188,891(12.5) 49.0
교 육 부 — 증가율	52,263(4.5) 24.8	177,549(11.7) 240.0
농촌진흥청 — 증가율	93,200(8.0) 22.5	110,580(7.3) 18.6
기타 부처 — 증가율	151,431(13.0) 1.9	177,142(11.7) 17.0
계 — 증가율	1,163,545(100.0) 15.8	1,513,154(100.0) 30.0

※ 예산은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한 수치임.

20%로 배정되었다.(표3 참조)

○주요사업별 투자내용

동 예산안을 주요 사업별로 분석해 보면,

첫째, 국립 및 출연연구기관의 연구기반 확충사업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2000프로그램 등 연구기관별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연구 및 연구시험시설·장비 구입에 출연연구기관 7천1백22억원, 국립연구소 2천4백32억원 총 9천5백54억원을 지원(63%)하고,

둘째, 우수연구집단 육성, 학술연구조성 등 대학연구활동지원비인 기초연구사업에 2천3백45억원을 책정(15%)하여 우수연구집단육성 및 목적기초연구에 4백20억원, 학술연구조성업지원비에 4백억원, 국립대 연구보조비에 3백89억원, 그리고 대학부설연구소 지원 등에 1천1백36억원을 배분하고 있으며,

셋째,2천년대 과학기술 선진7개국 수준진입을 위해 필수적인 초고집적 반도체 개발 등 11개 선도기술개발사업에 1천1백99억원을 투자(8%)하고 있는데, 이를 부처별로 보면 과학기술처 6백17억원, 상공자원부 4백72억원, 환경처 30억원, 보건사회부 30억원, 건설부 23억원, 농촌진흥청 27억원 등이다.

끝으로, 특정연구개발사업 등 기타 연구개발사업에 2천34억원을 배정(14%)하여 주력 성장산업의 기술력 제고를 뒷받침하고 있다.

〈94년도 과학기술처 소관예산의 주요내용〉

○규모

94년도 과학기술처 소관예산안은 93년도보다 21.6%가 증액된 6천1백2억원이며, 성질별로 보면 연구개발비가 전체 예산의 95.6%인 5천8백37억원이며 그 다음으로 과학기술행정 기타로 3.1%인 1백86억원이고 과학기술보조단체 지원 50억원, 원자력병원 지원이 30억원 순이다.(표4 참조)

○주요 부문별 예산내역

첫째, 93년도에 1천30억원인 특정연구개발사업비는 41.8%가 증액된 1천4백61억원으로 항공우주개발사업이 추가로 편성되었으며 첨단요소기술개발사업을 출연연구기관 연구개발사업으로 대체하였다.

둘째, 93년도에 연구비 4백40억원과 기금전입금 3백억원으로 편성되었던 기초과학연구비는 94년도 회계부터는 일반회계로 전환·지원키로 되었으며, 94년도 기초과학예산은 5백70억원으로 93예산 7백40억원 대비 23%가 외형상 감액된 것으로 보여지나 실제 기초연구비 투입면에서는 93년 4백70억원(기금전입 과실금 30억원) 대비 22% 늘어난 액수이다.

셋째, 과학기술인력분야에서는 창의적인 연구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고급과학 두뇌의 양성과 해외고급인력의 유치·활용 및 95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 광주과기원 건설사업을 중점 지원토록하고 있다.

넷째, 원자력기술 자립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목적연구로사업에 38억원을 증액 지원하고 원자력안전기술시설 확보를 위해 33억원을 증가시켰다.

다섯째, 정보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첨단과학기술정보 수집·제공을 위한 과학기술정보유통체제 구축·운영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여섯째, 과학기술진흥기반 구축을 위하여 과학기술경진대회 개최 등 과학기술진흥 재단의 사업과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과학기술진흥센터 건립 지원 및 과학기술 국민이해사업의

표4. 성질별 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내역	94예산안(A)	구성비(%)	93예산(B)	구성비(%)	증감(A-B)
(1)연구개발비	583,660	95.6	465,201	92.7	118,459
·특정연구개발사업	146,100		103,000		43,100
·기초과학연구사업 지원	57,000				57,000
·과학기술진흥기금	50,000		94,000		△44,000
·출연(연)연구사업 지원	330,560		268,201		62,359
(2)과학기술 보조단체 지원	5,004	0.8	3,554	0.7	1,450
·과총외 4개 기관					
(3)재정투융자 지원	3,000	0.5	3,000	0.6	-
·원자력병원 융자	3,000		3,000		-
(4)과학기술 행정·기타	18,552	3.1	30,138	6.0	△11,586
·인건비(5백33명)	8,759		8,145		614
·경상비 등	9,793		21,993		△12,200
계	610,216	100	501,893	100	108,323

(△ : 감)

기관별 총괄표

(단위 : 백만원)

		94예산안 (A)	93예산 (B)	증감 (A-B)	증감 %
세입		621	359	262	73
세출(a+b)		557,216	404,893	152,323	37.6
국가기관	본처	220,902	118,649	102,253	86.2
	〈특정연구개발사업〉	〈146,100〉	〈103,000〉	〈43,100〉	〈41.8〉
	〈기초과학연구사업〉	〈57,000〉	〈 — 〉	〈57,000〉	〈 — 〉
	대덕단지관리소	1,001	903	98	10.9
	국립중앙과학관	4,753	17,140	△12,387	△72.3
	소계(a)	226,656	136,692	89,964	65.8
출연기관	과학기술연구원 등 12개 출연기관(b)	330,560	268,201	62,359	23.3
재정투융자특별회계(c) 〈기초과학연구사업〉		53,000 〈 — 〉	97,000 〈44,000〉	△44,000 〈△44,000〉	△45.4 〈△100〉
합계(a+b+c)		610,216	501,893	108,323	21.6

효율적 추진 등의 역점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일곱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육성을 위하여 특수사업비, 광주과학기술원건설사업, 인건비 등을 확대하여 편성하였다.

끝으로, 94년도 과학기술진흥기금은 정부출연금(재특융자) 5백억원, 정부투자기관 출연금 2백억원, 기술개발복권발행수익금 6백84억원, 운용수익금 69억원 등 1천4백53억원으로 조성될 계획이며,

94년도에는 기초과학연구 지원이 일반회계로 전환·지원되어 기금적립금 3백억원과 기초연구사업비 4백40억원이 감소됨에 따라 향후 과학기술진흥기금조성 계획의 전면 재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또 94년도 진흥기금지원 유형은 융자계정으로 선도기술개발사업 6백억원, 특정연구개발사업 등에 4백억원, 기타 주요연구개발사업에 4백36억원을 배분 활용할 계획으로 있다.

〈향후의 정책과제〉

연구개발투자의 확대를 통한 정부의 과학기술혁신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

94년도 R&D 예산규모가 이를 단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와 같이 국가연구개발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연구개발투자의 양적 팽창도 중요하지만 효율적 배분을 통한 질적인 활용도 제고는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시급한 과제는 국가연구개발투자사업 전반의 종합조정체제를 보다 더 강화시키는 일이다. 최근 미국, 일본과 같은 기술선진국에서

특정연구개발사업 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94 예산안	93 예산	증감	%	비고
G7 프로젝트	57,200	50,000	7,200		
국책연구개발사업	29,300	4,000	25,300		
출연연구기관 연구개발사업	40,000	34,600	5,400		
국제공동연구사업	4,400	4,400	0		
연구기획·평가사업	3,000	3,000	0		
원자력연구개발사업	7,700	7,000	700		
항공우주개발사업	4,500	—	4,500		
계	146,100	103,000	43,100	41.8	

기초과학연구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94 예산안	93예산	증감	비 고
ㅇ기초과학연구사업	57,000	44,000	13,000	· 94년부터 일반회계로 주진 · 특정기초연구 2백90과제
— 목적기초연구비 지원	18,000	15,000	3,000	· 핵심전문연구 8백70과제 · 협력연구 89과제
— 우수연구집단육성	24,000	14,000	10.000	· 과학연구센터 14개 공학연구센터 16개
— 방사광가속기연구	15,000	15,000	0	· 총소요 1천4백47억원 (정부부담 6백억원)
ㅇ기초과학연구기금	0	30,000	△30,000	· 기금적립 폐지
계	57,000	74,000	△17,000	

의 거대 과학기술 행정조직의 출범 예고 등 과학기술정책추진체제의 개편에 관한 활발한 논의도 이러한 차원에서 비롯된 것이며, 하물며 자원빈국인 우리나라는 더욱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더욱이 지난 몇년간 과학기술정책 및 투자에 관한 종합조정기능을 담당해 온 종합과학기술심의회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는 정부, 산업체, 학계, 연구계의 정책전문가들 사이에 오래전부터 있어 왔으나,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장벽으로 인하여 획기적인 강화책이 채택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어떤 발전된 형식으로든지 각 부처에 흩어진 과학기술관련예산이 중복없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이 연구되고 또 정책으로 수렴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한 기술혁신의 가속화에 정부·민간 공히 노력하여 2천년대 과학기술선진국 진입의 기틀을 한층 더 다져나가야 할 것이다.

과학기술인력 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94 예산안	93 예산	증감	비 고
○광주과기원 건설	20,148	12,154	7,994	· 95년 개교 목표 (석사 3백60명,박사 2백24명)
○과학기술원 학사사업	15,061	14,424	637	· 석·박사재학생 2천9백15명 · 학사재학생 2천3백9명
○과기원 서울분원 운영	2,177	1,795	382	· 석사 4백명, 박사 3백명
○국비 과학기술 연수	2,992	2,560	432	· 2백명→2백50명
○재외고급인력 유치	51	102	△51	· 55명
○해외고급과학기술두뇌 초빙	2,000	—	2,000	· 1백명
계	42,429	31,035	11,394	

원자력기술 자립 및 안전성 확보사업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94 예산안	93 예산	증감	비 고
○다목적연구로 건조	15,110	11,287	3,823	· 열출력 30MW급
○핵주기 연구시험시설 운영	1,527	1,400	127	· 핵연료기술개발 지원 등
○원자력 안전규제	634	605	29	· 환경방사능 감시 등
○국가안전조치	77	67	10	· 국내 모의사찰 훈련
○원자력 안전기술원 시설확보	4,847	1,520	3,327	· 건물공사(6천평)
○원자력 연구시설 확충	2,205	685	1,520	· 오·폐수시설 및 병원연구동 건설
계	24,400	15,564	8,836	

정부출연연구기관 육성지원 예산내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94 예산안	93 예산	증감	비 고
○인건비	131,467	86,368	45,099	· 6천76명 지원
○기본인건비	8,617	8,617	0	· 선임연구원 이상 5백만원
○연구지원특수사업비	74,985	49,037	25,948	· 남극과학기지 운영 등
○학사사업비	17,238	16,218	1,020	· 한국과학기술원
○건설사업비	52,166	32,091	20,075	· 광주과기원 건설 등
○차관원리금	18,433	21,066	△2,633	· 2백20백만불
○외화대출원리금	13,399	10,793	2,026	· 1백27백만불
○경상운영비	11,255	43,011	△31,756	· 부족분은 자체수입으로 충당
○연구활동지원	3,000	1,000	2,000	· 인센티브 및 특허출원 지원
계	330,560	268,201	62,359	

정보산업육성 관련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94 예산안	93 예산	증감	비 고
ㅇ슈퍼컴퓨터 운영	11,532	8,200	3,332	· 2호기 도입 리스료 (총 3백88억원,5년분납)
ㅇ연구전산망 구축	623	393	230	· 지역전산센터 설치 등
ㅇS/W엔지니어링 전문인력 양성	426	426	0	· 장비운영 및 교재개발
ㅇ과학기술정보유통체제 구축	2,162	1,090	1,072	· 93.4 연구개발 정보센터 설립
ㅇ지역정보화사업	500	—	500	· 마산 · 창원지역 D/B
계	15,243	10,109	5,134	

과학기술진흥사업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94 예산안	93 예산	증감	비 고
ㅇ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3,810	1,833	1,977	· 진흥센터건립 및 운영비지원
ㅇ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	964	1,071	△107	· 청소년 과학경진대회 등
ㅇ우주소년단	150	500	△350	· 우주체험장비 구입 등
ㅇ종균협회 등	80	150	△70	· 종균협회, 세포주연구 재단
ㅇ국민이해증진사업	750	650	100	· 과학기술문화의 대중화 매체 개발 · 보급 · 과학기술 유적조사 등
계	5,754	4,204	1,550	

과학기술진흥기금 조성 및 사용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3	94	비 고
조성	ㅇ정부출연금(재특)	94,000	-	·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기초과학연구지원은 94년부터 일반회계로 전환
	ㅇ재특차입금	-	50,000	
	ㅇ정부투자기관 출연금	41,000	20,000	· 한국통신 1천억원(92년 1백50억원 및 93년 2백50억원 출연), 담배인삼공사 10억원
	ㅇ기술개발복권발행 수익금	14,600	68,400	· 정부의 복권발행규모 확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운용수익	2,231	6,899	
	- 융자이자	2,231	6,899	
	* 기초과학연구기금 연계 및 현물출연	-	-	· 기초과학연구지원이 일반회계로 전환함에 따라 진흥기금으로의 전입을 유보
	계	151,831	145,299	
사용	ㅇ기초과학연구 지원	74,000	-	·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기초과학연구지원은 94년부터 일반회계로 전환
	ㅇ국가적 연구개발사업 지원	77,831	145,299	· G7프로젝트 6백억원 · 특정연구개발사업 등의 후속연구개발사업 4백억원 · 기타 국가적인 중요연구개발사업 4백36억원 · 기금관리 및 차입금 상환 17억원
	계	151,831	145,299	